

## 한·필리핀 경제인 오찬간담회 연설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라모스 전 대통령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의 이 만남을 축하드립니다. 오전에 양국 경제인들이 오랜만에 만나 두 나라 간의 경제협력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얘기를 나누고 좋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중요한 의논을 하고 있는 시간에 저는 아로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습시다만, 그중에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전력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고 필리핀의 광물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서명하는 에너지협력약정과 광물자원협력약정은 이러한 협력을 제도화하고 구

체적인 사업 기회를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착수식을 갖는 마닐라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양국이 함께 자본과 기술·인력을 투입해서 건설하는 세부화력발전소는 이러한 협력의 상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양국은 모범적인 협력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DMB, 와이브로 등 최첨단 IT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IT 분야를 선도하면서 인적자원 양성과 초고속 통신망 구축, 그리고 전자정부 실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우수한 인력과 의욕적인 정책, 그리고 한국의 IT 기술이 함께하면 두 나라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분야의 협력이 보다 긴밀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이번에 문을 여는 IT 훈련원이 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아로요 대통령은 양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해 기여금 납부를 면제해 주는 사회보장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은 양국 근로자들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필리핀 경제인 여러분,

우리 두 나라는 1949년 수교 이후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전통적인 우방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전 당시 7천여 명의 젊은이들을 보내 주었고, 이러한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금 필리핀에는 20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이곳 젊은이들과 함께 땀 흘리고 있으며, 투자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현장에도 8천 명이 넘는 필

리핀의 근로자들이 우리 경제발전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아로요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이들 노동자 권익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 한국이 제도도 바꾸고 현장의 문화도 바뀌어서 실제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넘게 아로요 대통령과 만나 양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해서 많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4년간 한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 분야에 있어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업진흥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을 대표하는 분들도 함께 와 계십니다. 이미 오전에 대화를 나눴겠지만, 필리핀 투자에 착수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 경영자들과 경제단체 대표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만 그중 핵심적인 정보는 만나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된 이래 아로요 대통령을 특별히 따로 만나기도 하고 국제회의를 계기로도 여러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통 그런 계기에 또는 따로 양국 장관들도 자주 만나 많은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손에 두툼한 서류뭉치를 들고 다닙니다. 기업인 여러분이 교역이나 투자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로요 대통령에게 한국의 무역인과 투자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하나 열어 달라고 했더니, 이전에 열었는데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지지부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다시 열어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잘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난관이 없었다면 한·필리핀 관계가 훨씬 더 발전하고 활

발하게 진행되었을 텐데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는 다 해소됐습니다. 한국 경제가 착실하게 성장해 가고 있고, 필리핀 또한 수년 동안 안정된 토대 위에서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변화를 저희보다 더 잘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미래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갖고 더 활발히 교류하며 더 좋은 기회를 만들고, 그것이 양국 국민들에게 더 큰 복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경제적 충격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